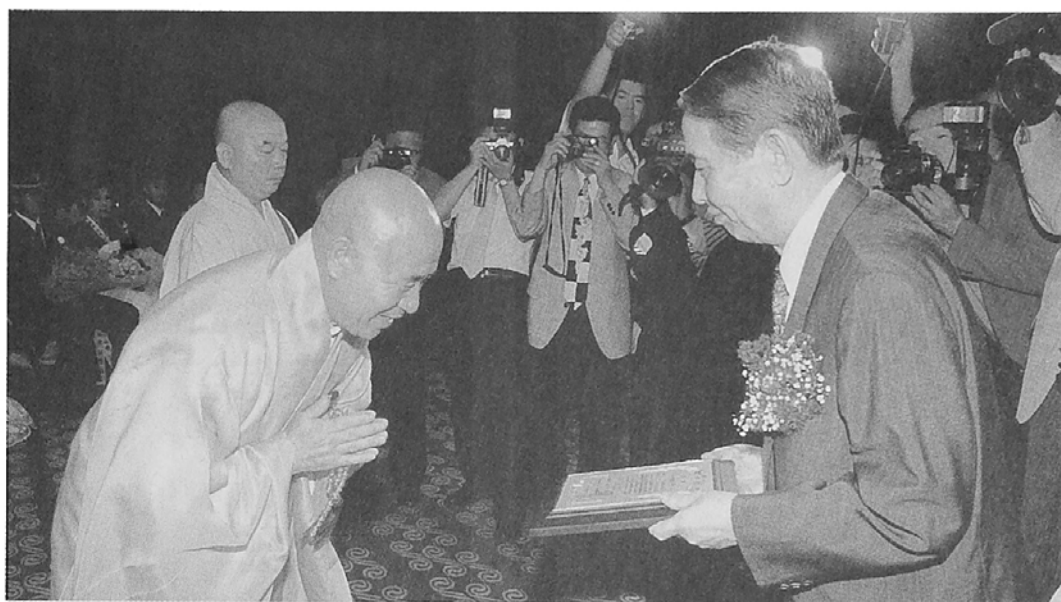


재소자 사랑 23년... "불성은 같아요"

교정대상 법무장관상 수상 정각스님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가 사회정의와 재소자 교정교화라는 성스럽고도 어려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재소자의 인권과 뒷바라지로 헌신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교정대상'을 올해로 제 16회째를 맞아 23년동안 묵묵히 재소자를 돕고 자활의지를 심어온 목포 보현정사 정각스님이 자비상(법무장관상)을 수상했다. 스님은 포교 낙후지역인 호남권에서 보현정사를 목포지역 최대의 사찰로 중창시키면서 지역불교의 새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1년 365일 어떤 형태로든 법회가 열리지 않는 날이 없는 보현정사. 포교와 복지라는 불교 역량의 두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고 있는 보현정사 주지 정각스님(한국불교법륜종 이사장)은 21세기 포교의 등불이 되고 있다.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5월 22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영예의 본상 자비상을 받고 있는 정각스님.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상식에는 박상천 법무부장관, 차일석 서울신문사장, 박권상 한국방송공사 사장, 교정기관장 47명과 스님을 축하하기 위해 목포와 서울에서 동행한 신도 60여명 등 2백여명이 자리했다. 스님은 이날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 16명과 함께 청와대를 예방해 김대중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재소자 교화와 종교인들의 역할에 대해 환담했다.

“국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현실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악을 증가시켜 종교의 역할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 출가 수행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고 보니 책임감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제16회 교정대상 자비상(법무장관상)을 수상한 정각스님(보현정사 주지, 법륜종 이사장)의 감회다.

그동안 스님이 받은 수상·포상만도 수십개를 헤아리지만, 이번 교정대상은 스님에게 각별하다. 1970년 포교 사각지대에 속하는 목포 시내 중심에 보현정사를 창건하고 전법과 복지를 지향한 법륜을 굴러, 목포의 상징사찰로 자리매김한 29년의 세월이 되돌아 보이기 때문이다.

“30년전 목포는 원불교 천지였습다. 도량을 세울 터를 찾으면서, 큰일났다 싶고 불심의 씨앗을 뿌려야겠다는 원력이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그저 알만보고 밀어부쳤

어명에 달해 그 수용규모가 전국에서 몇 개에 불과하다. 75년 목포교도소 독지방문위원으로 위촉받아 시작한 재소자의 교정교화 활동은 정신수화는 물론 신령지도 수계식 독경대회 위안잔치 사회경화 등 행사를 벌여왔고, 교양도서와 교화용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특히 출소이후의 갱생을 위해 스님은 탄탄한 보충인이 돼주었고, 무의탁 출소자 생활지원 취업제공 등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왔다. 지금까지 출소자 48명을 불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취직시켜 재범은 꿈조차 꿀수 없게 했다. 재소자들의 신심을 다지는 교화프로그램으로 '교도소 독경대회'는 목포교도소가 효시로 7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85년부터 지금까지 불우 재소자 35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1인당 1만원씩 영치금을 넣어준다.

“교화활동의 보람은 새사람이 되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무의탁 불자 재소자들은 일단 아침 6시에 출소하면 우리

남의 원력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목포시 하당 신도심 중앙지역에 서게될 불교회관과 장의포교를 이끌어낼 극락전을 보현정사 경내에 조성해 이를 토대로 생산불교 생활불교를 벌이는 일이 스님에게는 더욱 큰 불사이기 때문이다.

대지 2백평에 지상7층 지하1층의 연건평 1천여평의 불교회관이 올 연말 완공되면 임대사업을 통해 그 재원으로 원활한 복지 사업을 편다는 것이다. 손뼉러서 이루어지는 복지활동은 한계가 있고, 불공으로 사찰 운영이나 포교활동을 펴는 것은 더이상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그

수계식·독경대회등 열어 재범 방지 무의탁 출소자 취업알선 갱생 도와 종합불교회관 건립 복지사업 앞장

고, 부처님 가피로 마침내 1년만에 불심의 싹을 틔웠습니다.”

스님은 신도조직을 결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연령과 지역을 중심으로 신도단체를 꾸렸고 직업이나 직능에 따라 또 생활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신도회를 결성하도록 이끌었다. 그렇게해서 보현정사는 중신도회를 중심으로 여신도회 지장회 자비회 보리수회 영산회 관음회 선행회 청년화단 등 20개의 산하 신도회가 각기 정기법회를 중심으로 특성을 살려가며 활동하고 있다.

75년 사찰 내부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불교총합을 이루듯 탄탄해지자, 스님은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 각 분야 참여를 통해 불교 위상을 확대해 갔다. 교도소 가운데 목포는 재소자가 1천7백

명에 육박한다. 많을 때는 7명까지도 함께 살았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들이 오는 첫날 아침공양은 반드시 한상에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절의 불문율이지요.”

스님에게 가장 고맙고 가슴에 남는 사람은 전과7명의 안모씨. 출소후 그를 신원보증해줘 (주)보화에 취직시켰고, 신도 딸과 중매까지 서 결혼하게 했더니 3남매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산청에 있는 한 사찰의 신도회장을 맡아 포교에도 열심이다. 그럼에도 재소자 교화활동은 험지만은 않다. 재정적인 지원도 따라야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비구니스님들에게는 특히 더 부담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대지 3만평 신도 1만2천여명의 보현정사, 남도불교의 중심사찰로 자리매김했지만, 스

래서 스님은 생산불교를 일구고 있다.

“돈은 칼과 같은 것입니다. 칼은 의사가 쓰면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쓰면 죽이는 도구지요. 마찬가지로 돈도 깨끗한 돈이 가난하고 소외된 중생들에게 배풀어지면 곧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스님은 사찰운영과 포교에 굳이 비빔밥이 있다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으로 신심과 원력과 끊임없는 참회의 3요소가 따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일례로 스님은 출가 이후 단 한번도 빠짐없이 아침예불과 아침발우공양을 지켜오고 있다.

“21세기가 원하는 불교와 스님의 역할은 시종에서 중생을 품어안아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끝없는 중생사랑은 IMF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가 되고 있다.

약력

- 1938년 전남 무안출생
- 61년 건국대 법정대 행정학과 3년 재학중 출가
- 68년 선원 5년거 성안
- 68~70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22교구본사 대흥사 총무
- 70년 목포 보현정사 주지(현재)
- 71~89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전남총무원장
- 72년 목포교도소 교화협의회 불교위원(현재)
- 74~91년 목포시 시정자문위원 한국방송공사 목포지국 자문위원
- 79년 제3해역사 법당 해광사 건립
- 82년 보현유치원 설립 및 원장취임(현재)
- 83년 광주지법 소년교화위원(현재)
- 84년 해양경찰서 경승(현재)
- 90년 법륜종 중앙종회 의장
- 95년 목포교도소 종교협의회 회장(현재), 유치원설립자 유아교육 전공 이수(중앙대학교)
- 96년 법륜종 재단 이사장(현재)
- 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현재) 학교법인 정광중고등학교 재단 이사(현재), 민주통일불교중앙협의회 상임위원(현재)

수상

- 법무부장관 표창(79년), 국무총리 표창(82년)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9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표창(94년), 인권옹호한국연맹 회장 표창(9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표창(94년)



목포 최대 사찰 보현정사

총 도량 면적 3만여 대지 9천평에 지리한 목포 용해동 보현정사. 20동의 전각과 요사들이 마치 계울에서 개차법을 쓰듯 전통과 현대양식으로 어울려 중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 8층석탑 뒤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나뉘는 극락전 원통전과 영산전 중각 해탈문이 있고 그 아래 유치원이 들어섰다. 대웅전 왼쪽으로 요사(3층)와 회관이 자리잡았다.

산하단체

- 총신도회 회장 권이담
- 여신도회 회장 김이숙
- 지장회 회장 임정순
- 자비회 회장 장복례
- 보리수회 회장 배은아
- 관음회 회장 오영자
- 영산회 회장 백여영
- 정각회 회장 정순남
- 반야회 회장 김순자
- 금강회 회장 이충엽
- 선행회 회장 김공님
- 법성회 회장 정인숙
- 성도회 회장 김금자
- 자선회 회장 김화순
- 보현회 회장 홍완식
- 달마회 회장 김희태
- 백련회 회장 김경현
- 청년화랑단 단장 임병철
- 중고등화랑단 단장 배형교
- 초등화랑단 단장 강효성

법회안내

- 일반/ 매주 일 오전10시
- 창년/ 매주 수 오후7시
- 대학생/ 매주 목 오후6시
- 중·고등학생/ 매주 토 오후3시
- 어린이/ 매주 일 오전10시
- *특별법회/매월 3일·7일 오전10시

월례법회

- 보현회/ 셋째주 일
- 달마회/ 7일 오후7시
- 백련회/ 첫째주 수
- 법성회/ 15일(양) 오전10시
- 보리수회/ 1일
- 선행회/ 28일(양) 오전10시
- 금강회/ 5일
- 반야회/ 7일
- 영산회/ 10일
- 성도회/ 13일
- 자선회/ 15일
- 정각회/ 17일
- 지장회/ 18일
- 관음회/ 20일
- 자비회/ 24일



위문교화

영·호남 교화위원들이 한자리에 지리한 가운데 친선교류를 위한 목포교도소 재소자 위문 특별교화법회가 94년12월 목포교도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각스님은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문으로 재소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회견학

93년 목포교도소 모범재소자 17명이 보현정사에서 기도도 하고 법문도 듣고 맛있는 공장도하면서 1박2일의 사회견학 시간을 보냈다. 재소자들을 위해 법문을 하기 위해 대웅전에 입장하는 정각스님.



독경대회

재소자 독경대회는 사회인들이 벌이는 대회보다 더 열띤 '야단법석'을 이룬다. 신심을 강화하고 스스로 불심을 확인케하는 재소자 독경대회에 앞서 정각스님은 독경의 의의와 자세를 들려주고 있다.



농악대 창설

목포교도소는 75년부터 매년 전체 재소자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 정각스님의 지원으로 농악대가 창설돼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우리가라에 시름을 달래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다.



음식공양

재소자들에게 사회음식은 별식종의 별식이다. 97년 추석, 종교를 떠나 1천여명의 무연고 재소자들을 위해 보현정사 신도들이 '일 가족'이 돼 푸짐한 음식으로 추석잔치를 벌였다.



연예인공연

연예인 공연은 특히 재소자에게 감동이크다. 96년 목포교도소 불교종교위원들과 함께 후원해 마련한 연예인 초청 특별위문법회. 1천여명의 재소자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교화행보 이마저모